



제26-01517호
(2026.04.02~2027.04.01)



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인상과 엔화 안정세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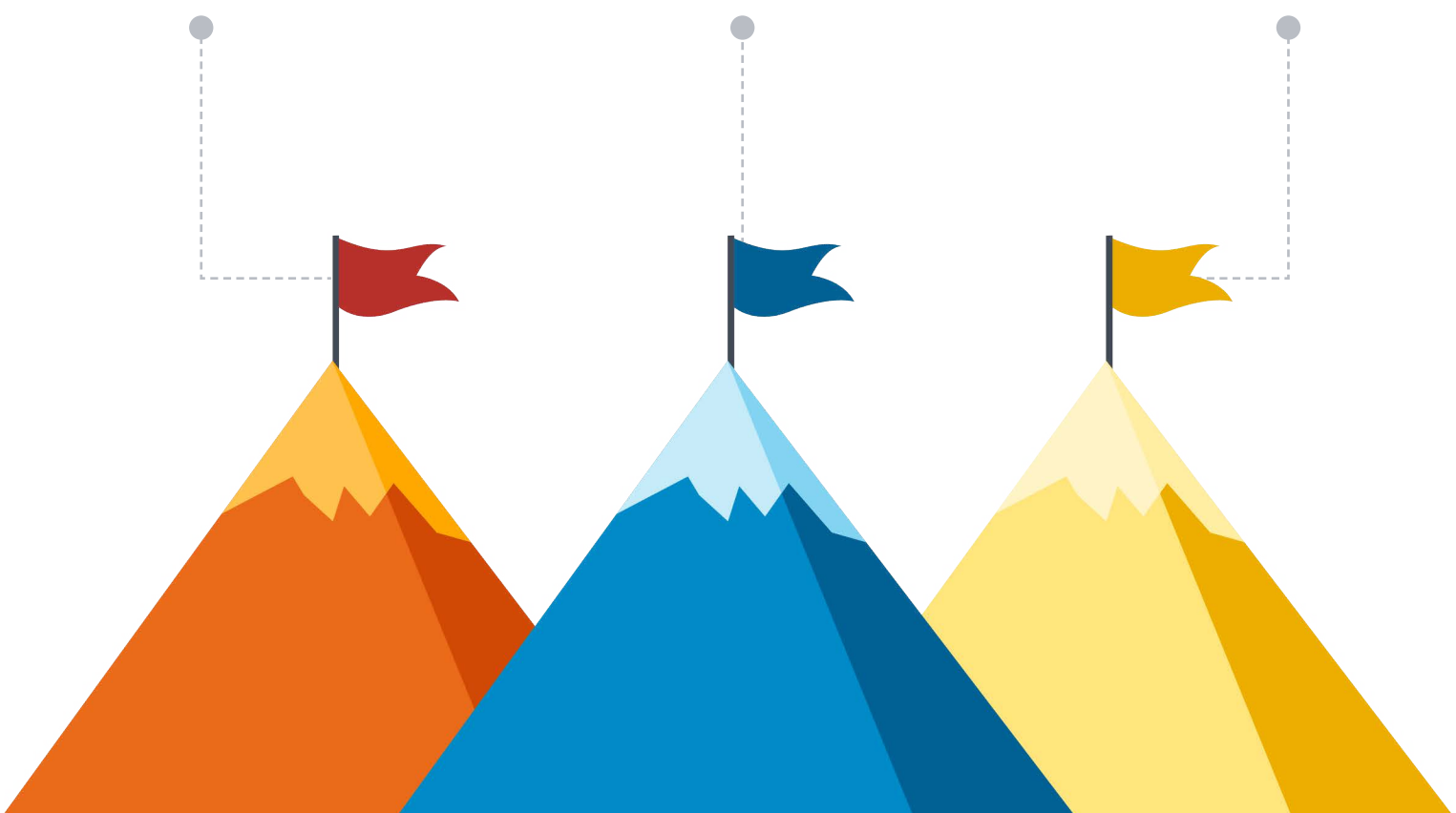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이후
소비심리에 힘이 실려
유통, 서비스, 헬스케어
등 내수 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금융 업종

저금리로 위축됐던 은행,
보험사 등은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금비중이 높은 기업

금리인상으로
자본을 재배분해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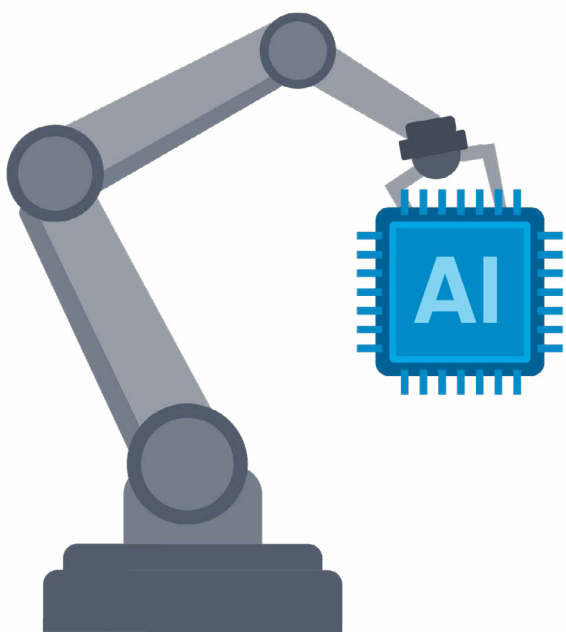


초대형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들도 입지를
굳히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노동력이
축소돼 수요가 공급을 앞서며
건설사들의 가격 결정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AI 수요, 공장 자동화,
방위 산업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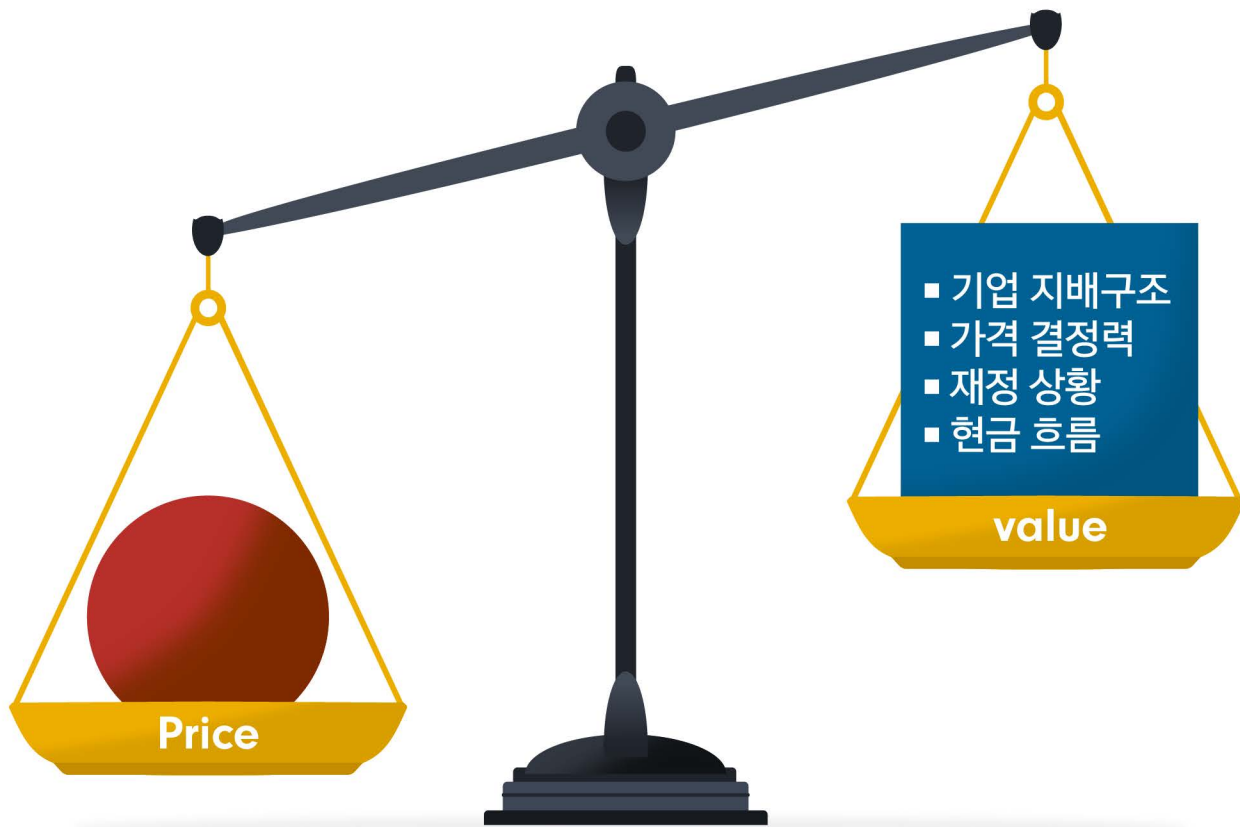


피델리티 재팬 펀드 -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

매력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일본 대형 가치주와 함께 중소형 가치주에도 투자합니다.



성장주 중심의 동종그룹 펀드들과 달리
다양한 업종과 시가총액에 걸쳐
성장 잠재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 요인을 강조합니다.



피델리티 재팬 펀드 - 일본의 다양한 기회를 활용

PER과 PBR이 낮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며,
50-8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일본의 잘 알려진 우량 종목 뿐만 아니라
저평가된 다양한 기회도 활용하는 피델리티 재팬 펀드,
장기 투자 목표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펀드 개요

펀드명	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목적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회사의 주식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				
상품유형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재간접형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환헤지 방식	환율변동 위험에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최고 100% 수준				
종류구분		종류 A	종류 C1	종류 CP (퇴직연금)	종류 PRS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1.20% 이하	없음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	집합투자업자	연 0.10	연 0.10	연 0.10	연 0.10
	판매회사	연 1.00	연 1.50	연 0.50	연 0.60
	수탁회사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사무관리회사	연 0.022	연 0.022	연 0.022	연 0.022
	기타 비용	연 0.0493	연 0.0501	연 0.0492	연 0.0490
	합성총보수 비용*	연 2.3213	연 2.8221	연 1.8212	연 1.9210
	증권 거래비용*	-	-	-	-
매입	17시 이전 신청 시: T+2일 (3영업일) 기준가 적용, 17시 경과 후 신청 시: T+3일 (4영업일) 기준가 적용				
환매	17시 이전 신청 시: T+2일 (3영업일) 기준가 적용, T+7일 (8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신청 시: T+3일 (4영업일) 기준가 적용, T+8일 (9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2026년 3월 6일 기준

* 직전 회계연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합성총보수 비용: 피투자펀드 총 보수비용 연 1.11%로 추정

-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까지 (역외펀드) Fidelity Funds - Japan value Fund에 투자합니다.
- 연금형 펀드의 경우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자산가치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인은 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Fidelity, Fidelity International, Fidelity International 로고 및 F 심볼은 소유권자인 FIL 리미티드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KM26-18(2026.04.01~2027.03.31)